

내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군산시, 20일부터 24일까지... 취약계층 안정적 공공일자리 제공 예정

군산시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2018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총 46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2018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3개월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며, 3개 유형의 23개 사업에서 참여자를 모집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근로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로서 재정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며, 특히 청년층(만 18~34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적합대상 사업은 선발인원 범위 내에서 우선 선발한다. 또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의 생계급여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권자 정기 소득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 농민이나 그 배우자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포함)의 배우자 및 자녀, 접수사직일 기준 연속 2년 초과 공공근로를 포함한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참여한 자 및 접수사직일 이후 유망사업의 재정지원사업 참여포기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기본 근로조건은 1일 6시간(주 5일 총 30시간) 근무에 월 평균 11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된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해 관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www.gunsan.go.kr) 고시공고관을 참고하거나 군산시 지역경제과(☎ 454-276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기자

송호진 의원 발의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 익산시의회 언론 재갈물리기 논란

익산시의회가 언론의 보도 기능에 제재를 가하려 하고 있어 '언론 재갈물리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익산시의회는 헌법에 명시된 언론·출판의 자유까지 자차법규로 통제하려 하고 있어 초법적인 권한 남용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8일 송호진 의원의 발의로 '언론관련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 조례는 언론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익산시의회 등에 비판적인 언론에 대한 통제를 위해 사용될 우려가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 조례는 당초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조정성립 또는 직권조정 결정을 통해 조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이 연 3회 이상인 경우 1년 이상 지원을 중단토록 규정돼 있었다.

그러나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조정정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경우 1년 이상 지원을 중단토록 수정돼 비판적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내포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례가 발효될 경우 언론과 당사자간의 분쟁에서 언론위의 조정을 거쳐 조정정보도하게 되면 시의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더욱이 익산시민과 익산시 관내 관공서, 익산시 소재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한 보도까지도 시의회가 조례를 바탕으로 언론을 통제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민들의 알 권리까지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비쳐진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조례 개정안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의 표현의 자유까지도 침해할 소지가 많아 상위법 위반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송호진 의원은 조례 개정 심의에서 "언론이 사실을 보도 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수반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시의원은 "통과된 개정안은 언론의 편을 뺀 것이냐 다름없다"면서 "시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희망복지지원단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군산시가 동절기 한파에 대비하여 주거 난방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사업'을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서는 이번 사업을 통해 동절기 난방에 취약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이 필요한 가구 발생시 공기열 및 민간기업, 사회단체 참여를 유도하여 위기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설 방침이다.

특히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정 기타 후원금을 확보하여 민간자원 연계방식으로 에너지 사각지역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27일, 시에서는 27개 읍면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활용하여 지원사업 대상자의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위기 사유별로 현지 확인을 거쳐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취약가구의 주거 난방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지원 내용으로는 대상 가구에 보일러 수리 및 설치, 연탄, 난방유류, 전기매트, 겨울참주세트 등 난방용품이며, 2016년에도 총 1억2천여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희망을 전달한 바 있다.

김장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최근 총체적인 경제 침체와 나눔 문화 확산에 저해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50만원 정도) 이하의 저소득층이 해당되며, 긴급한 위기 사유가 발생한 취약가구 및 사례관리대상자도 적극 발굴, 지원할 예정이다.

/군산=김판곤기자



어르신들의 몸도 마음도 건강하게

군산시 보건소, '시니어 정서지원 프로그램' 성료

군산시 보건소(소장 전형태)는 노인 우울 및 자살 예방을 위한 '시니어 정서지원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마무리 했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에서는 우울증 고위험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우울증 예방교육과 더불어 미술활동, 야외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참여자들에게 활력을 불어넣었다.

정서지원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진행된 '경로당 짝꿍 만들기' 프

로그램은 관내 10여개의 경로당에서 서로의 인부를 묻고 관심을 가져주는 짝꿍을 만들어 참여자들의 고독감과 우울감을 낮추는 데 기여했으며, 매달 1회 이상 우울증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부와 우울감을 확인하는 'e-check' 프로그램은 참여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노인들의 고독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시에서

는 정신건강 취약계층이 우울감과 고독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군산정신건강복지센터의 부설 마음건강클리닉에서는 우울감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에게 상담실 문을 열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 445-9191)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 'LED 조명 무상 교체 지원사업' 완료

군산시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68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 '2017년 LED 조명 무상 교체 및 전기설비 안전점검 실시 사업'을 지난 10월 말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LED 조명 무상 교체 지원사업은 화현면과 개성면 개성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전기시설이 노후화되고 효율이 낮은 조명기구 사용과 고장 등을 이유로 사용할 수 없는 조명기구를 방치하면서 실내의 조도저하, 전기요금 부담 가중에 따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군산시는 지난 4월부터 취약계층 680가구에 백열등, 형광등의 기존 조명을 LED(발광다이오드) 조명으로 교체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전기요금 절감 등 가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했다.

문용목 지역경제과장은 "LED조명 교체로 에너지 절약과 안전이 확보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더 많은 취약계층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에너지 복지 분야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김판곤기자

익산시, 귀농귀촌인 한마음 대회 성료

익산시(시장 정현율)는 지난 10월 오전 옹포문화체육센터에서 100여명의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화합과 상호간 교류를 위한 귀농귀촌인 한마음 대회를 개최했다.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의 소통의 장으로 마련된 이날 행사는 귀농귀촌인들이 지역 농업현장에 잘 융화되고 성공적인 정착을 응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행사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 어울릴 행사를 통해 친목과 화합의

시간을 갖고 오후에는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장기자랑과 체육 행사 등을 하며 우의를 다졌다.

정현율 익산시장은 "편리한 교통시설, 좋은 교육여건, 의료시설, 국가식 품물클러스터 등 귀농하기에 좋은 여려요건을 갖춘 익산에 정착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며 "앞으로도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찾는 활기찬 익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응급 구호품 세트

홍보대사 안재욱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ARS 1577-8179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